

라디오 한국 (1270KHz-KNDI)

시간 : 수요일 낮 2시~3시, 목요일 밤 9시~11시
토요일 밤 8시~11시

하와이版

1649 Kapiolani Blvd. # 3, Honolulu, Hawaii 96814 ☎ (808) 955-2292

알라 모아나 집

결혼·생일용 부케·화환·레이·배달함
☎ 947-5266

힐로市서 移民75주년 行事

하와이카운티서 경축식주최 4백여명참석
사진이민자에 레이걸고 文化展·야유회도

카운티밴드가 연주
하와이 동포의 노래

(힐로시·하와이-최갑
식지국장, 김용대통신원)
하와이의 발전에 기여한
한국이민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축하식이 14일 오후 1시
부터 3시까지 빅아일랜드
힐로시에서 열렸다.

한국인 하와이 이민75주
년을 경축하기 위해 하와이
카운티가 마련한 이날
경축식은 허버트 마타요시
힐로시장, 우시지마주상원
의원, 세가와하원의원등
계요인과 헤리킹 빅아일랜드
드 코리엔클럽 회장을 비롯
한 이곳 교포사외 유지를
이민교포동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했다.

45명으로 구성된 하와이
카운티 밴드가 「하와이 동
포의 노래」와 「고향의 봄」
등을 연주하는 가운데
대오열이 끊이지 않는 힐로
시 중심가 「와일도아센터」
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마타요시시장은 「한국
인들은 지난 75년동안 우

리가 즐겨 생존하는 이곳
사회형성에 역력한 공헌을
해왔다」고 치하하고 「앞으
로도 한인들은 하와이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리요시지사 축사

이리 요지·아리요시 주
지사는 하워드 리마키시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한
국 이민자들이 이땅에 이룩
한 공적은 헤아릴수 없을
만큼 대대적이다」고 말하고
「다재다능한 한인들은 랑
후 하와이의 문화발전에도
큰 공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하계으로 초청받은
사무엘리박사는 「그동안
일본등의 요망이었던 빅아
일랜드는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상 빛나는 요지」라고
회고하고 「이민75주년을
경축 하는 오늘 초기이민과
최근에 이민은 교포들이
합심협력하여 건전한 한인
사회를 이룩해 가고 있는 점
에 경의를 표한다」는 축사
를 했다.
이리 최초이민자중 생존



▲경축사를 하는 마타
요시힐로시장.

해있는 할머니들에게 축하
레이가 증정됐다.
60여년전 사진전경은 하와이
민사회의 터전을 굳혀 온
선구자들은 손자, 손녀들로
부터 레이를 받는 순간 감
동에 젖어 눈물짓는 모습
도 보였다.

이날 경축식은 교포 3
세인 남진영씨와 최근이
민은 이명순씨가 화관부,
부채춤, 승무, 5고무등을

필적으로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특히 한복
으로 차려입은 미국인 할
머니들이 교포 3세 남진영
씨의 지도하에 우리나라 무
용을 선보여 보는 이들을
감격케했다.

코리아클럽서 후원
한인공적 주제전시

▲하와이카운티에서는
빅아일랜드 코리아클럽의
후원하에 오는 28일까지
한국문화전시회를 와일도
아일랜드에서 열었다.
「하와이에서의 한인들의
공적」이라는 주제로 열리
고 있는 이 전시회에는 초기
이민의 생활상과 고 이
승만박사가 뜻을 굽던
송가마을의 모습을 담은
각종 사진 1백여점을 전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성, 서화, 도자기,
공예품등을 진열, 한국인
과 한국문화에 고루 소개
하고 있다.

▲1백가4백여명
1·2세 협력공고
▲한림 빅아일랜드 코리아
클럽 회원들은 15일
오후 11시부터 「오네카하카
비치공원」에서 야유회를
열고 이민75주년을
자축했다.

1백50여 교포가
참석한 이날 야유회는
가을밤을 푸르게
유혹도 함께
즐겼다.

빅아일랜드에는
현재 1백여
가구에 4백여
교포가 살고
있는데 한인
들의 융화단
결은 타 민족
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곳 한인사회는
하와이
대학교 힐로
캠퍼스에 재
정중인 한영
기막사(경제
학)를 비롯
하여 황석
원(수리), 민
태홍(수리),
박준(수리),
허일무(인
내과), 이
홍(산부인
과) 등의
전문수술
을 구비
하고 있어
단단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인 1세인
학자와 의
사들은 교
포사회 내
의 모든
일을 도
맡아 하
면서 최
고의 2
세에 달
기까지
1세와
2세간
의 열
정을
열어
놓고
있다.

올해
새해
장으로
피선
된
헤리
킹씨
(하와이
카운티
제
난
조
조
장)는
한인
사회
의
일
을
시
작
하
면
서
부터
1
세
사
회
를
이
해
하
기
시
작
했
고
이
곳
에
코
리
안
의
이
미
지
구
현
에
알
장
되
고
있
다.

하와이 한인권익 투쟁위
원회(위원장·김하원)는
지난 13일 한국일보
나성지사에
서한을 발송,
지난번 동
부위가 스태
블리튼지
사
와
관
련
된
광
고
계
를
의
외
했
나
동
광
고
가
계
제
못
된
대
한
해
명
을
요
구
했
다.

初期 이민자
공적기린
祝祭

画報로보는 빅아일랜드의 『한국의날』



▲옛 화로와 장승, 병풍등이 전시장에 나왔다.



▲한국문화전시장-이민 1세의 사진과 옛 한국
의 풍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힐로시한인회야유회-1세와 2·3·4세들
이 한자리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있다.



▲하와이섬에 한국의 고전미를 보급하고 있는 남진영씨가 화관우를 추고 있
다. 남씨는 1905년에 이민온 초기이민의 3세이다.

3년
부터
하와이
에
온
이
민
1
세
들
이
걸
어
간
길
이
한
눈
에
보
이
도
록
전
시
되
고
있
다.



▲14일 한인이민75주년 기념식장에서 하와이카운티밴드가 「하와이동포의 노
래」와 「고향의 봄」등을 연주했다.

韓人代表 초청 간담회

아리요시州知事, 정순형씨등 16명
주정부 요직에 한인起用등을 건의

(하와이) 오는 11월 7일
에 있을 주지사 선거에 민
주당을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는 요지·아리요시 후보
는 17일 오후 3시 한인사
회 대표급 유지를 16명을
접수실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참석자는 정순형
출리후, 조이제, 김달욱,
오건장, 조자룡씨등을
제외한 한인권리투쟁 위
원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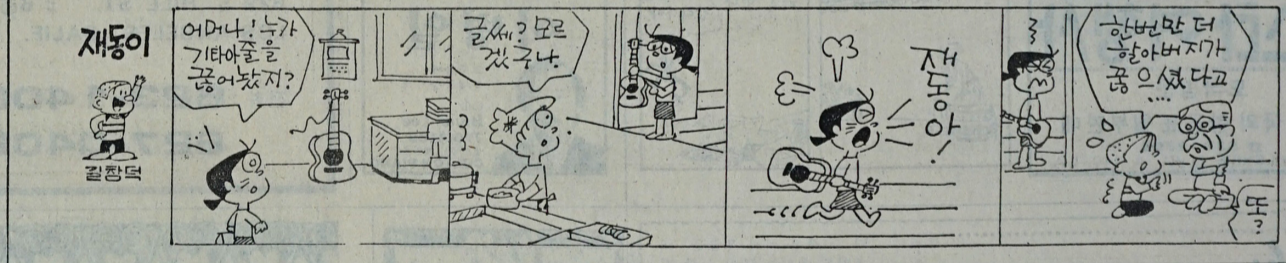
안으로 오아후섬에 15개의
개천을 청소해낼 계획이다.
해당 개천은 와일도,
몰리와이, 하우스런, 카위
밀리리M-1, 밀리리
M-5, 하이쿠, 카모알리
카무나알라, 카와이누이,
칼라레오·힐사이드, 마우나
윌리, 카하와이 등이다.

호놀룰루
市庁소식

15개 개천청소작업
금년안에 오아후섬
▲호놀룰루 시청은 금년

本報에 解明요구
하와이 權益투위

하와이 한인권익 투쟁위
원회(위원장·김하원)는
지난 13일 한국일보
나성지사에
서한을 발송,
지난번 동
부위가 스태
블리튼지
사
와
관
련
된
광
고
계
를
의
외
했
나
동
광
고
가
계
제
못
된
대
한
해
명
을
요
구
했
다.



하와이 「라디오 한국」방송(1270-KNDI) · 수 낮 : 2~3PM · 목 밤 : 9~11PM · 토 밤 : 8~11PM

개업 THE FIRE WORK'S 출연!

하와이 교민여러분을 FIRE WORK'S악단의 감미로운 음악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LEADER 원광연씨와 새얼굴 멤버들 FIRE WORK'S의 경쾌하고 감미로운 LISA CLUB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IRE WORK'S 악단은 여러분들에게 감미로운 음악을 매일밤 선
사해 드릴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이국생활의 외로움과 피로를 은은한 분위기속에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LISA 배상.
OPEN : 1:00 PM~2:00 AM
연주시간 : 9:00 PM~2:00 AM
◆각테일 웨이트레스 모집중◆

LISA 나이트클럽
841-2398 294 KALINI STREET HONOLULU, HAWAII 96819

이웅기 (베이스 기타) 우재길 (울 갠) 원광연 (밴드 마스터) 스티브·김 (기타) 빅터·권 (드럼)